

■ 고용노동부 자동차 5사 근로시간 실태조사

# 연장근로 관행화... 1주일 13시간 더 일해

## 조기출근·점심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부, 주기적 점검...적발땐 사법처리 방침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근로 기준법을 어기며 근로자들을 연장근로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시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여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 5개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당 평균 55시간(연 2400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상용근로자(주당 평균 근로시간 41.7시간)보다 일주일에 무려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외국의 동종업계(연 1500~1600시간)와 비교해도 50%(연간 800시간 이상) 이상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업체 중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였다. 현대차는 휴일특근을 포함해 주당

총 근로시간이 46시간15분(전주공장 야간조)에서 64시간55분(전주공장 일부 주간조)이나 됐다. 전주공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상한선(12시간)을 무려 4시간55분이나 초과했다.

기아차는 54시간15분(광주공장 야간조)에서 56시간30분(화성공장 주간조) 근무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야간조,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특근은 생산량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토요일 최대 8시간 실시하고 있다.

한국GM은 56시간20분(군산·창원공장)에서 58시간20분(부평·보령공장), 르노삼성차는 51시간20분(주간조)에서 56시간20분(야간조), 쌍용차는 40시간(평택공장)에서 56시간20분(창원공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 늘상 연장근로가 이뤄지면서 5개 업체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못하게 규정했지만, 업체들은 조기 출근과 식사시간 30분 단축, 야간조 조기 투입, 주2회 휴일특근 등의 방법으로 이를 어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자동차업체의 연장근로 관행이 주야 2교대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야2교대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주간조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야간조가 맞교대하는 것으로, 주간2교대제 또는 주간3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완성차업체와 비교하면 지극히 후진적인 근로방식이다. 특히 밤샘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인원 증가 없이 생산량을 높이려는 사측과 수입을 올리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업체에 연장근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앞으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추가 적발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올리는 등 지원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 “산업 경쟁력 약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6일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산업은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내 설비투자 및 인력투입이 불가피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한국 자동차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영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의 생산은 확대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제조 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금호타이어 온실가스 감축 인증

### 3년간 잣나무 283만그루 심어 9142t 절감

금호타이어는 6일 지난 3년간 총 9142t의 온실가스를 줄여 잣나무 283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7년 11월 동종업계 최초로 정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해 올해 4월까지 3년 여동안 총 9141t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공식 인증받았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전 대응을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기업이 등록된 감축 계획량을 검증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증해 준다.

금호타이어는 가류기 개조와 절판기 설치 등 생산설비 교체를 통해 연

료 사용을 줄이고, 연료도 배출계수가 낮은 LNG 청정연료로 대체해 올해 3차년도 5510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1차년도 1197t, 2차년도 2428t 등을 감축했다.

금호타이어가 줄인 온실가스 9141t은 잣나무 283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자료, 잣나무 1그루 3.22kgCO<sub>2</sub>, CO<sub>2</sub> 1t 감축 잣나무 310그루 효과)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는 생산과정에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의 친환경 리더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농협 중앙회장 선거 본격화

### 김병원 남평농협조합장 등 6파전 전망

농협중앙회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근직 이긴 하지만 조합원 회원수 245만명,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농업계의 대통령’으로 불리

도 한다. 임기는 4년.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에 6일 현재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병원 남평농협 조합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최덕규 경남 합천 가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병 회장은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재선 고지’에 도전했고, 김병원 조합장을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정부의 4조원 지원 약속으로는 사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최 회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고용부 내년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신세계 ‘유니클로’ 오픈

지난 4일 (주)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에서는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신규오픈해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유니클로는 패셔너블한 고품질 베이직 캐주얼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개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다.

<광주신세계 제공>

## “두부·레미콘, 대기업 더이상 진입 말라”

### 중소적합품목 25개 선정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적합품목 선정 품목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을 빚었던 품목들이 포함됐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두부에 대해 동반위는 ‘확장자재 및 진입장벽’ 결정이 나왔다. 대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차 늘리기

위해 지금 수준에서 대기업이 확장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비포장 두부 시장에는 대기업이 새로 진입하지 말 것, 포장용 대형 관두부에서는 대기업이 철수할 것 등으로 정립됐다. 또 대기업에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자제하고, OEM(주문자상표부식생산)업체를 대상으로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설계생산)이나 OBM(자가브랜드 생산) 방식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팽팽하게

맞섰던 레미콘 분야에서는 양쪽 모두에 확장 자제를 권했다.

김치와 조미김에서는 대기업이 급속시장·군남시장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품목 중 하나였던 내비게이션은 ‘반려’ 결정을 통해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데스크톱 PC 분야는 대·중소기업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큰데다 동반위에서도 아직 논의가 충분치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심의가 연기됐다.

### ■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 품목

분류	품목	권고내용
일부사업 철수	김치	일반식당 대학 등에서 사업철수, 중·고교 급식시장, 군남시장서 확장자재
	LED 등	대기업은 광원부품 및 대량생산제품 주력, 중소기업은 소량다품종 단순조립제품 주력
	어육	급식시장 공급원에 직접판매 자제 및 OEM사업 철수
	주조 6개품목	내수시장 철수 및 신규진입 자제
사업축소	단조 7개품목	내수시장 철수 및 신규진입 자제
	햄버거용 빵	일반 소매시장 사업 축소, 군남시장 확장자재
진입장벽	남성, 소년장장	기성복 및 전문매장 사업진입 자제
	확장자재	김치 및 군남시장 확장 자제
진입 및 확장자재	두부	포장두부는 현 수준에서 확장 자제,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 자제, 포장용 대형 관두부는 시장 철수
	가티판유리 가공품	코팅유리, 무리판유리 외 품목 확장자재, 신규대기업 진입자재
의결회의결	레미콘	복층유리, 강화유리서 OEM업체서 현수준 유지
		B2C시장 확장자재, 신규대기업 진입자재
		원두커피, 생선피, 신규대기업 진입자재, 대기업 설비 확장자재

## 체크카드 서비스 대폭 축소

### 카드사, 내년부터 놀이공원 등 할인 중단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유지를 위해 체크카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적었던 체크카드는 고객에게 더욱 외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은 내년 초부터 체크카드에 대해 놀이공원이나 커피전문점, 영화관 할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대거 줄일 방침이다. 카드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외 압박으로 중소기업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낮히고 수수료율을 1.80% 이하로 낮추는 등 수익이 감소한 부분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예금잔액만큼 쓸 수 있고 현금서비스나 할부 등을 할 수 없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여주는 카드가 아니

로도복권 (제46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0 13 23 32 44 2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530,313,45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1,735,822
3 5개 숫자 일치	1,314,703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매립장치모델 전자총기능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 만도 블랙박스 BN100

-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 Real HD 1채널 8기가 26만원 ⇒ 22만원
-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차량용 고급수중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2620 10-14만원
- ▶ E7 17만원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편팅, 3M코팅, 모비스센터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닷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귀객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끌

인동우거리 | 일산신방직 | 허남 | 신원사거리 | 신원사거리(20번길)

한국카랜드 | 인동우거리 | 일산신방직 | 허남 | 신원사거리 | 신원사거리(20번길)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